

Daily Auto Check

2021.2.10(Wed)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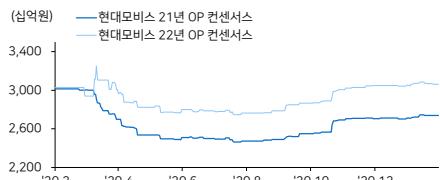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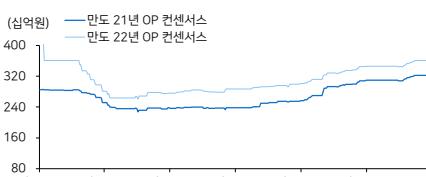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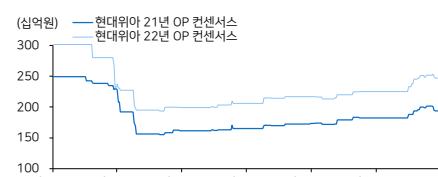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美업체 '가장 가능성 높은 애플카 파트너는 폭스바겐과 현대차' (조선비즈)

애플이 미리보는 투자은행 웨드부스를 이용해 애플이 올해 상반기 전기차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며, 폭스바겐과 현대차가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함. CNBC 역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며 재결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9/202102090109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s

넥쏘, 미리와 '호주 1호 수소차' 경쟁 (헤럴드경제)

세계 최대 수소 수출 국가로 떠오르는 호주 현지에서 수소전기차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됨. 넥쏘는 호주 멜버른에서 오는 3월 말까지 토요타 미리와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며, 주행거리 및 편의성 등 효율성 입증이 주 목적. <https://bit.ly/3p6PxCK>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공장 신규 설립 검토 (서울경제)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의 수소 연료전지 공장을 신규 설립 예정. 지난해 말 발표한 '2025 전략'의 일환으로 그룹의 수소 벤처인 중 핵심으로 해당하는 수소 연료전지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https://bit.ly/3jzV2K7>

강호찬 "일본에 비대면 타이어 구독 서비스 도입" (헤럴드경제)

넥센타이어가 일본 시장에서도 비대면 타이어 구독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 강호찬 부회장은 "일본 시장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타이어를 렌탈하는 '넥스트 레벨 고'와 같은 타이어 구독 서비스를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힘. <https://bit.ly/3cYyhwW>

기아차, 2021년에 PBV 첫 모델 출시 (세계일보)

기아가 내년 목표기반모빌리티(PBV) 첫 모델을 출시하고 전기차, 모빌리티 사업 등 3대 핵심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함. 관심을 끌었던 '애플카'와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으나 미래차를 향한 회사의 체질 변경 계획은 유지함. <https://bit.ly/3aN3XUV>

GM extends shutdown at three plants due to chip shortage (CNN Business)

Last week GM announced that three of its North American plants would be shuttered this week due to the chip shortage. But on Tuesday, GM said it would extend the shutdown through at least mid-March. <https://cnn.it/3a4q4oY>

만도-서울로보틱스 '자율주행 라이다 기술' 제휴 (파이낸셜뉴스)

만도와 서울로보틱스가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인 라이다와 4D 이미지 레이더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 <https://bit.ly/3p6RBdy>

만도·한온시스템·엠에스오토텍·테슬라 韓 부품사, 글로벌 러브콜 (한국경제)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전기차업체에서 지명도를 높인 한국 부품사들은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도 잇단 '러브콜'을 받음. 국내 깨다로운 완성차업체들에게 공급한 덕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https://bit.ly/3cYEgc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압박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